

어스탁 아이온

January was the season of forgetting.

Granted, terf filled to the briney brim with concrete.

I put a pickle in the concrete, door open slightly ajar.

Roar! *Vin*, nap like the solution to the equation is
another glass. Grape-colored glasses, lip-tinted
cheeks, scratching the back of a forgetful, forgetful
dog's head or fur, the fur hat of its ear, having,
having, having.

나를 좋아해? あたしすき気。여기 気、キスト,
鳥의 키스도.

당신의 꽃달린 얼굴로 かおを かおを달려가서
나는 그렇게 그대의 품으로 かえる。

맛있는 꽃봉오리, 전 부쳐 먹으면, 라면도 곁들여
먹을까, 食べました。

타인의 얼굴을 바로보는 것은 실례라는 말이
있는데.

“어? 하지만, 畳に寝하다 그대 얼굴 보면 얼굴이
피는 걸요.”

담배는 피는 것. 꽃이 피듯이 피는 것. 빛방에서
어둡고 검은색 필름이 깨어나듯 피어나는 것.

Guts cut from the stomach of an eel. Eels seemed to
reproduce without a trace. Eels' mating habits, their
spawning waters off the coast of Florida, puzzled
lots of elephants for centuries.

A millenia passes. I do not open my eyes. Still
ringing in my ears: “Do not open your eyes!”

Another millenia. And another. Does a millennium bloom? Is a millennium a flower, a cigar, or a pre-exposed film in the darkroom?

“What is that?” Two square windows at Portland Union station. Eyes of God. A few men shuffling about, sleeping on the bleachers, looking around or looking down. Their eyes, dissipating smoke, some 소스라치도록 violent.

“That is divine light,” someone replies. *Merci*, I mutter.

A flower eats a bee. The bee sees its tender tendrils, the moment of its death. The tendrils, pluralized, or their pluralization, evaporate, the moment of unity. / It flowers.

A fish bites a worm hooked to a ㄷ-shaped needle. See? She says, holding up the pink carp, its scales reflecting divine light.

There was a time – or was it a time? – where
sleeping without divine light in your 아이즈 meant
you might never wake up where you were; you
might wake up, facing a pigeon, or having become a
pigeon; and you flew around, so as to deliver peace.

月が光。天皇は何をわかる? 시루떡 만드는
Moon bunny. 그녀 눈은 반들한 송편마냥 glisten.

“글쎄,” 하고, 몸의 빈 공간을 비어있다 느껴지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소리가 나는,
사타구니부터 눈물이 아니라 눈물의 부재를
부정하는, 느낌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다.

天上天下唯あ公存, 나는 말했지. 아, 아. 아.

“글쎄,” 소리는, 입꼬리가 슬쩍, 가시적인
초승달처럼 올라간다. 소리는 입에서 나온다.

맨입에 거미줄로 사악한 빛아닌 빛이 바느질 해서,
새끼가 입술에 닿지 않아서, 거미야, 거미야, 하고
부르던 심장이 타들어 가서, 거미가 눈을 여덟개나
만들어 팔방을 보았지만 미치지 못해서, 어, 하고
입술 떼어 대답 못하고, 고개만 머, 눈만 니, 하고
돌리던 어머니 꿈을 끈 적이 있다.

꿈은 묶는 거라고 한다.

Molten rock: lava. Fire is rage, but lava a path. A
crow flies over, くろ、くろ。The moon, and the
moon bunny, care about the crow. Black night
nonetheless.

박쥐가 어스를 헤집고 나온 용광로 따라 어스땅
안으로 속으로 날개 펄럭여 날아간다. 땅속 깊은
곳 용이 코를 후비적후비적 용광로 히터 삼아 쿨쿨
잔다.

나는 용이 꿈을 꾸는지 모른다. 하지만 용과
대화하고 나면 용은 꼭 콧구멍 윗부분 부드러운
곳을 콧, 하고, 右手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눌러 깨워준다. 하품이 아등바등 나온다.

어지간히 깊은 땅속은 빛은커녕 시간조차 닿지
않는다.

귀지는 코딱지처럼 시원하게 재밌게 후빌 수 없기
대문에, 귀는 코보다 민감해 뽀족히 후비다간 피가
나는 게 아니라 큰일이 나기 때문에, 용이 귀를 번
잘못 후비면 조심스레 굴러가는, 또 용과 함께
굴리는, 시간이 터져버릴 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용은 가끔 잠을 자는 거라고, 나는
시를 썼다.

용은 말했다.

“별로.” / So cool...

박쥐가 별빛따라 달길따라 용광로 따라 갔을 때
용은 어디가 가려웠나. 박쥐가 날아와 큰일났어요,

어머니가 시간의 틈에 갇힌 것 같아요, 하고 말을
어우성 어우성 하며 쏟아냈을 때, 아침에 하나되어
같이 온 나비도 그렇다고 확인했을 때, 용은
거미를 찾아서 어디로 갔나.

거미는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거미는 어디에나
있다.

어스탁 아이온, 어스탁 아이온, 어스탁 아이온.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용탓도
아니오. 그거를 이제는 알아 주었으면 하오.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큰하품 ひかり고 번쩍
번갯불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의 원자 하나, 하나,
하나가 빛처럼 가볍고 신나고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시원한 바람을, 산들바람을,
에헤라디아 바람을 불러주는 아름다운 사람을
나는 안다.

소가 코에 쇠고랑 차고 콩밭을 간다. 송아지
눈매는 달의 눈물을 닮는다.

어머니가 시간의 틈에 갇혔다는 전보가 날아온 밤,
달님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더랬었대라.

나는 부엌에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내님은 우주 먼곳
미래에서 아이들과 우주선을 지휘하고
있었더랬대라.

엄마가 가라고 했었었었었었었대라.